

경제 세계화의 지역적 경험: 칠레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의 도밍가 프로젝트와 환경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현*

단독/전북대학교

Seo, Ji-Hyun (2018), "Grounding Economic Globalisation: The Case of Dominga Project and Local Environmentalism in Punta de Choros, Chile"

ABSTRACT

Within a dichotomous framework of structuralist approaches, recent local conflicts tend to be understood as reactionary or passive responses to economic globalization. This binary approach to local conflicts may prevent us from understanding the complex dynamics of local experience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ichotomous understandings of local conflicts, this article aims to ground economic globalization and to examine its diverse dynamics as experienced by different local social groups. This is also placed within recent alternative understanding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local conflicts. For this purpose, the Dominga Mine-port Project is presented as a case study, along with its 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s in Punta de Choros, Chile.

Key Words: economic globalisation, extractive industry, local environmentalism, livelihoods, Dominga Mine-port Project

서론: 경제발전 vs. 환경보호

2017년 8월 칠레 안데스 철강(Andes Iron)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Dominga Mine-port Project, 이하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정부 내각 특별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밍가

* Ji-Hyun Seo is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h_seo@jbnu.ac.kr).

필자는 논문에 대해 유의미한 커멘트를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프로젝트는 안데스 철강이 칠레 중북부 코킴보(Coquimbo)주(Región IV), 라 이게라(La Higuera)군에 위치한 폰타 데 초로스(Punta de Choros) 마을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구리-철광산 개발 프로젝트이다.¹ 안데스 철강은 2011년부터 도밍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 9월 환경평가원(Servicio de Evaluación Ambiental, 이하 SEA)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환경영향평가(EIA)보고서를 제출하였다.² 하지만 이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양론이 개발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2016년 환경보호주의 측을 대표하는 환경 NGO인 오세아나(Oceana Chile)가 안데스 철강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에 결함이 많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양론이 보다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코킴보 지역 환경위원회는 도밍가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환경평가결의’(Resolución de Calificación Ambiental, 이하 RCA)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하여 안데스 철강은 정부 내각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광산 회사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017년 8월 위원회는 도밍가 프로젝트가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 관련 정보 부족 등을 근거로 코킴보 지역 환경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지지하였다.³

위원회의 도밍가 프로젝트 환경평가결의 불허 결정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경제발전 vs. 환경보호」라는 이분법적 도식 하에 후자의 승리를 보도하며 도밍가 프로젝트가 계획된 폰타 데 초로스 지역 환경주의자들의 승리로 묘사하였다.⁴ 특히 폰타 데 초로스 지역은 전 세계 36개의 중요 생태지역 중

1 칠레의 행정구역은 크게 15개의 주(Región), 54개 군(Provincia)과 346개 시(Comune)로 나뉜다(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Chile 2015, 13).

2 칠레 현행법에 따르면, 광산 기업들은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환경평가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Seo 2017, 2).

3 2017년 8월 위원회의 도밍가 광산 불허 결정에 따라 안데스 광산은 현재 칠레 환경재판소(Triple Tribunal Ambiental de Antofagasta)에 재심을 또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환경재판소 결정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재심을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도밍가 광산 프로젝트 지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Presidente ejecutivo de Andes Iron asegura que proyecto Domíngua no está muerto”, 2017.10.14. www.24horas.cl [검색일: 2018.01.11.]).

한 곳으로 1990년에는 칠레 정부가 국립 훔볼트 펭귄 보호구역(La Reserva Nacional del Pinguino Humboldt)으로 지정한 3개의 섬 -다마스(Damas) 섬, 초로스(Choros) 섬, 그리고 차라냐(Charaña) 섬 -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또다시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양 생태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생태적 중요성에 힘입어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평가결의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우선주의와 환경보호주의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된 것이다. 국가 경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광산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⁵를 둘러싸고 과열된 찬반양론은 바첼렛 전(前) 대통령 내각(2014-2017)⁶ 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위원회의 불허 결정이후 바첼렛 정권 하의 경제 부처 장관들(로드리고 발데스 재무부 장관, 루이스 펠리페 세스페데스 경제부 장관, 알레한드로 미코 재무 차관 등)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Seo 2017, 1). 이러한 경제 부처 관료들의 입장은 안데스 철강의 CEO인 이반 가리도(Iván Garrido)의 주장과도 맥락을 함께 하는데, 그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칠레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도밍가 프로젝트는 광산 건설 단계에서 약 10,000개의 일자리 창출, 영구적으로는 1,4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였다.⁷

-
- 4 한편, 이러한 경제 개발주의와 환경주의라는 이분법적 설명이외에도 일부에서는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 프로젝트 환경평가결의 불허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도밍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안데스 철강의 대주주인 카를로스 알베르토 델라노(Carlos Alberto Delano)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Chile Rejects Divisive \$2.5 Billion Dominga Copper-iron Ore Project”, 2017.08.21. www.mining.com [검색일: 2018.01.10.]).
 - 5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은 실질적으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 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 1,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일자’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은 중남미에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사회 분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본 논문이 공간의 제약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못함을 밝힌다. 제도적 한계와 사회-환경 분쟁의 상관성과 관련해서는 Seo(2016)를 참고할 수 있다.
 - 6 2017년 말 칠레 대선에서 중도우파연합 ‘칠레 바모스’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前 대통령(첫 번째 정권은 2010-2014년)이 재선되면서 현재의 도밍가 프로젝트 환경평가결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화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Seo 2017,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네라 당선자가 ‘도밍가 광산 프로젝트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주요 주주 명단에 피네라 당선자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Seo 2017, 4).
 - 7 “Chile Rejects Divisive \$2.5 Billion Dominga Copper-iron Ore Project”, 2017.08.21. www.mining.com [검색일: 2018.01.10.].

같은 맥락에서 칠레 보수적 정치인들과 국내 자본가들은 위원회의 결정이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⁸ 칠레 광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칠레 광산 협회(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SONAMI) 역시 스페인 언론(Efe)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의 결정은 칠레 광산 부문 뿐 아니라 칠레 국가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⁹

반면, 오세아나와 지역 주민들을 필두로 한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광산 개발에 따른 폰타 데 초로스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에 대한 대책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바첼렛 前 정권하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마르셀로 메나(Marcelo Mena)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내각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기술적’ 측면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¹⁰ 같은 맥락에서, 일련의 과학자들은 칠레 정부에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의 시행이 라 이게라 지역의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식적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광산 등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 분쟁 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경험한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 채택하고 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제 노동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또다시 원자재 수출에 근거한 발전 모델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 분쟁은 다양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나타났다.¹² 하지만 위의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8 여기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미는 주로 ‘국가 경제 발전의 논리와 배치’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원회의 결정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부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이 비판하는 ‘정치적’ 결정의 의미는 경제 발전에 배치되는 환경주의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의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hile Rejects \$2.5 Billion Copper and Iron Project; Company Vows Appeal”, 2017.08.21. www.reuters.com [검색일: 2018.01.10].

9 “Chile Rejects \$2.5 Billion Coquimbo Mine Project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2017.08.22. <http://santiagotimes.cl> [검색일: 2018.01.10].

10 여기서 기술적 근거라고 하면 광산 활동이 지역 생태계나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hile Rejects \$2.5 Billion Coquimbo Mine Project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2017.08.22. <http://santiagotimes.cl> [검색일: 2018.01.10].

11 “Chile Rejects \$2.5 Billion Coquimbo Mine Project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2017.08.22. <http://santiagotimes.cl> [검색일: 2018.01.10].

분쟁 사례와 같이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주의 분쟁의 사례를 이분법적 틀로 이해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 단기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분쟁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요인과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¹³ 또한 지역주민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요인을 ‘환경주의’라는 틀 내에서 이해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분쟁의 실질적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예방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분쟁의 해결이라는 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생태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원개발과 지역 환경 분쟁을 둘러싼 「경제발전 vs. 환경보호」와 같은 단순화된 이분법적 이해의 학술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환경주의에 대한 분석의 차원을 ‘지역’(local)의 차원에 두고 지역 내에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 그룹의 환경주의 이면의 복잡한 동학을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¹⁴ 학술적인 차원에서 본고는 자원 개발과 지역 환경주의에 대한 이해가 경제 세계화와 자원 개발이라는 ‘국제적’(global) 경제발전주의와 그에 따른 ‘지역적’(local) 차원의 환경주의라는 이분법적 차원에서 이뤄진 구조주의적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그룹들이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12 라틴아메리카의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회 분쟁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OCMAL(Observatorio de Conflictos Mineros de América Latina)에 따르면,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회 분쟁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을 거쳐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광산 관련 분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apa.conflictosmineros.net/ocmal_db-v2/을 참고할 수 있다.

13 물론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은 주로 경제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구조주의 분석가들이나 자원개발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의 틀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로 최근 들어 행위자 중심 분석, 혹은 권력의 복잡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 논문은 구조주의적 이분법적 분석을 비판하고 이러한 대안적 분석 논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힌다.

14 분석의 차원이 지역적이라는 측면은 물리적 차원에서 ‘지역’에 제한(local-bound)되지 않으며, 지역 분쟁과 관련된 지역 기반의 활동(local-based) 역시 포함함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해는 국제(global)-지역(local)적 차원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재생산 하기 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보다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밝힌다.

대안적 분석의 논의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차원의 각기 다른 사회 집단의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보고는 경제 ‘세계화’가 ‘지역’에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동일하게 강요 혹은 주입되기 보다는 다양하게 ‘경험’되며, ‘저항’받기도 하고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힘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각기 다른 활동들이 접목되는 ‘과정’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측면에서 ‘경험’되고 ‘저항’받을 수 있는 것이다(Singh 2010, 64).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험적 연구로서 보고는 칠레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폰타 데 초로스 지역의 사회-환경 분쟁을 분석한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보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칠레의 경제 세계화에 따른 자원 개발 산업의 발전과 지역 환경 분쟁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경험적 사례 연구로서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와 사회-환경 분쟁을 살펴본 후, 지역 환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폰타 데 초로스 마을 내 주요 사회 그룹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보고는 사회-환경 분쟁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환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경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세계화의 다양한 경험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세계화, 칠레 자원 개발 산업 그리고 지역 사회 분쟁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경제 구조 개혁을 단행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상당수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풍부한 천연자원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자재 수출 산업을 경제 발전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많은 국가들이 자원 개발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무역 자유화, 조세 제도의 단순화, 환경 및 사회 부분의 탈규제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자원 개발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그리고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의 21세기는 유례없는 자원 개발 붐에 따른 자원 개발 산업의 성장을 경험했다. 베빙턴(2012)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 걸쳐 광산과 탄화수소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Bebbington 2012, 3). 특히 2000년대 이후, 유례없는 자원 개발 붐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은 점차 광물, 석유, 천연 가스 개발 등 천연 자원 개발에 따른 사회-환경 분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자원 개발의 규모, 범위, 혹은 성격에 따라,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의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사회 환경적 영향, 자원 개발에 따른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과 관련된 문제, 관련 제도적 규율의 문제, 정치 사회 세력 간의 권력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¹⁵

경제 세계화와 칠레 자원 개발 산업

칠레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더 빠른 시기에 시장 중심 경제 발전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대 광산 개발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이 이뤄진 반면 칠레는 1970년대 초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모델이 추진되었다(Singh 2010, 63). 칠레에서 경제 세계화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력을 얻게 된 배경은 피노체트 독재 정권 하의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함께 강력한 신자유주의 발전 담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세계화의 배경에서 칠레 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로 정부, 민간 자본 부문, 그리고 언론이 혼연일체 되어 공고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Barton et al. 2012, 112). 특히 1970년대 이후 수출형 경제 발전 모델에서 칠레는 비교우위에 있는 원자재 수출 산업을 발전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대표적으로는 광산업, 농업, 어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ibid., 111). 특히 전통적인 광산 국가인 칠레에서 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세기 말에는 질산염(nitrate) 붐으로 칠레의 광산업이 성행하였으나 이러한 질산염 붐은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에서 인공 질산염이 개발되면서 주춤해졌다(Barton et al. 2012, 114). 전간기부터는 구리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고 이후 발전과 정체를 거듭하면서 칠레 경제 발전의 주축을 마련하였다(ibid.). 20세기 말 수출 주도 경제 발전 모델이 채택되면서 칠레의 광산업의 중요성은 또다시 부각되는데 이는 칠레국영 구리회사(Corporación Nacional del Cobre de Chile, 이하 CODELCO)¹⁶의

15 사회 환경 분쟁 관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ebbinton(2012), Haarstad(2012), Bebbington and Bury(2013), Petras and Veltmeyer(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6 CODELCO는 '아엔테 정권 시절인 1971년 외국 기업인 케네콧사(Kennecott Company)의 엘 테니엔테(El Teniente)와 아나콘다사(Anaconda Company)의 치키카마타(Chiquicamata), 엘 살바도르(El Salvador), 그리고 포트레리요스(Potrerillos) 등을 대상으로 한 구리대광산

형성 및 다국적 기업들의 광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⁷

칠레의 경우 이와 같이 경제 세계화와 수출 주도 경제 발전 전략에 힘입어 20세기 후반 비교우위에 근거한 구리를 위시한 광산업의 중요성이 지속되었다. 광산업의 경우 칠레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Greco 2015, 2), 2010년 전체 투자 규모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로(Greco 2015, 14), 이는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정치경제 여건과 투자에 유리한 제도를 통한 국내의 민간 자본의 투자가 증가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Singh 2010, 60). 이렇게 20세기 후반 칠레의 발전 모델이 여전히 광산업과 같은 원자재 생산과 수출 산업에 의존하고 그러한 자원 개발 산업과 국가 발전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빌랄바-에길루스(Vilalba-Eguiluz)와 에트사노(Etxano)가 설명하는 (고전적)의미의 자원개발주의(extractivism)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Vilalba-Eguiluz and Etxano 2017, 4). 이러한 ‘자원개발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수출 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치사회적 통제도 적절히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Greco 2015, 2).¹⁸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민간자본에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규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광산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Singh 2010, 61).

특히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자원개발주의’적 성격은 1970년대 초 채택된 일련의 제도 개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74년 외국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Statute, 법령 600)을 제정하여 자본재 수입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조세 지불 연기를 보장하며, 투자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광산개발권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유화를 통해 1976년에 설립된 칠레 최대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자이다(Yi 2013, 90).

17 1980년대 초의 경기 침체 이후에는 구리 이외에도 몰리브덴, 리튬, 금 등 광물 개발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Barton et al. 2012, 114).

18 20세기 후반은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는 2000년대 이후 소위 후기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정책을 추구한 라틴아메리카 주변국들과 칠레가 구분되는 점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페루와도 차별화된다. 싱(Singh)이 지적하고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의 진보정권 하에서는 자원 개발 산업 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이뤄졌는데, 예를 들면, 조세제도를 개혁하거나, 환경 규율을 강화하거나, 국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Singh 2010, 75).

1979년에는 노동 유연화를 제도화하기도 하였다(Singh 2010, 71). 이러한 광산 개발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 개혁은 1983년 광산법(the Mining Code)에 반영되었다(ibid.). 이와 같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있어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자원 개발 산업이 민관합작 투자로 이뤄지는 경우 (외국)자본의 역할의 정당성을 보장하기도 하였다(Singh 2010, 65). 자원 개발과 관련한 시장 친화적 정책 및 규율은 1990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정부 하에서는 광산 개발의 현대화, 자원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과 광산 회사와의 관계 개선, 환경 관리 등의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졌다(Singh 2010, 72).

칠레 자원 개발 산업과 지역 사회 분쟁

위와 같이 ‘칠레의 기적’을 이끌었던 자원 개발 산업이 경제 세계화와 시장 중심 발전 모델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토지, 물 등의 천연자원이 점차 수출을 위한 상품화(commodification)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범위와 정도 또한 확대, 심화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목표는 ‘국가차원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괴리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자원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대 이후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분쟁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안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분쟁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뤄진 것에 비해 칠레의 사회 분쟁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는 일부 대표적인 사례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⁹ 칠레의 사회 분쟁(혹은 사회 운동)과 관련해서는 20세기 대규모 도시 사회 운동이나 제도화된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한 운동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사회 분쟁과 관련해서도 주로 전국적 차원의 영향력을 미친 사회 운동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Delamaza et al. 2017, 24). 특히 주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이 높고 신자유주의 경제 발전 모델의

19 칠레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사회 분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arton et al.(2012), Sepúlveda and Villarroel(2012), Oyarzún and Oyarzún(2011), Urkiti(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 칠레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분석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제도화 수준으로 인해 칠레에는 마치 정치사회적 분쟁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시키거나 현재의 정치경제적 발전 모델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계는 델라마사(Delamaza)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하듯이,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 분쟁을 단순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적인 지역 이기주의 차원으로 제한하여 이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Delamaza et al. 2017, 25).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 분쟁은 다양한 요인, 규모,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정치경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초 원자재 개발 붐과 함께 광산 개발 프로젝트, 전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과 같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회 분쟁은 주로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 프로젝트가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유발하는 사회 환경적 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 혹은 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문화적 유산과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간의 이익 상충, 지역 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두고 기업과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 충돌, 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제도의 허약성, 개발 관련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지역 주민의 참여 요구 등으로 다양하다(Delamaza et al. 2017, 25-28). 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사회 분쟁은 사회-환경 분쟁으로, 국가인권원(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INDH)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기록된 사회-환경 분쟁은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Delamaza et al. 2017, 30).²⁰ 또한 지역 사회 분쟁에 주된 요인이 되는 산업 부문은 자원 개발 산업으로,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발생한 사회 분쟁 101건 중 에너지 개발 관련 산업과 관련된 지역 분쟁은 44건, 광산업과 관련된 지역 분쟁은 28건으로 집계되었다(Delamaza et al. 2017, 32). 결과적으로 지역 차원의 사회 분쟁 사례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은 경제 세계화와 그와 함께 추진되는 시장 중심 경제 발전이 칠레의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경험’되고 ‘도전’ 혹은 ‘수용’되고 있음을 반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20 2015년 국가인권원의 업데이트된 자료에는 5건의 사회-환경 분쟁이 추가되었다(Delamaza et al. 2017, 30).

이러한 지역 차원의 사회 분쟁이 특정 지역의 넘비적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지역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보여주기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그룹이 개발 프로젝트와 어떻게 각기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사례 분석함으로써, 경제 세계화가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경험’되는 ‘과정’임을 분석할 것이다.

도밍가 프로젝트와 지역 환경 분쟁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는 안데스 철강(Andes Iron Company)²¹이 칠레 중북부의 코킴보(Coquimbo)주에 위치한 라 이게라(La Higuera)군의 폰타 데 초로스(Punta de Choros) 마을에서 27년간 개발을 계획한 구리-철광산 프로젝트이다. 안데스 철강에 따르면 도밍가 프로젝트는 25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시작되면 연간 철 1,200만 톤과 구리 15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으로 프로젝트 개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레코(Greco)에 따르면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는 다음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Greco 2015, 26).

- 1) 도밍가 지역: 2개의 대규모 노천광, 광물 가공 공장, 가공 잔여물 저장 탱크(tailing storage tanks);
- 2) 생산을 위한 파이프라인: (광물 생산 시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담수화 공장에서 물을 끌어 올릴) 수도관과 (채굴된 철과 구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도관;
- 3) 토토리알리요(Totalillo) 지역: 담수화(desalination) 공장 및 신설될 항구

안데스 철강에 따르면, 도밍가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광산 개발의 형태와는 차별화되는 ‘신광산’(Nueva Minería)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밍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웹 사이트²²에 소개된 신(新)광산 개발의 구성 요소는 크게 환경적

21 안데스 철강은 델라노 멘데스 가(家)(75%), 가르데스 실바 가(家)(14%), 회사 경영진 주식(11%)으로 이뤄진 주주회사로, 주로 대형 광산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만(Iman) 프로젝트와 도밍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http://andesiron.com>).

22 <http://www.conocedominga.cl> [검색일: 2018.01.11].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도밍가 프로젝트는 특히 광산 활동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가 아닌 100% 바닷물을 담수화 처리하여 광산 활동에 필요한 수자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담수화 공장을 신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토리요 노르테(Totoralillo Norte) 지역에 설치될 공장에서 담수화 처리된 바닷물은 광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수로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담수화 처리된 수자원 이용과 더불어 광구 아래 위치한 지하수의 수질에도 영향이 없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동시에 채굴된 광물 수출을 위해 건설 예정인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수를 일 년에 56척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변 해양 생태계에의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데스 철강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新)광산 개발을 위해 도밍가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광산 개발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 사이트에 따르면, 2016년 10월 안데스 철강은 라 이계라 지역 공동체와 공동 협정(Acuerdo Marco)을 맺어 양자 간의 수평적이고 투명한 관계에서 지역 공동체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²³ 공동 협정에서 합의된 안데스 철강의 공동체 지원 재정은 국제 철 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13.41억에서 26.83억 페소 사이의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 발전 재원의 운용은 별도로 안데스 철강이 NGO를 설립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²⁴ 안데스 철강의 도밍가 프로젝트가 개시되는 초기에 3개의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인데, 통합적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proyecto de gestión hídrica integrada), 교육 및 직업 교육 프로젝트(proyecto de educación, capacitación y empleo), 그리고 생산 부문 지원 프로젝트(proyecto de apoyo a sectores productivos)가 이에 포함된다.²⁵ 이와 같이 안데스 철강은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신(新)광산 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3 안데스 철강과 라 이계라 지역 공동체 간 공동 협정에 대한 협상은 2015년 3월에 개시되었다.

24 <http://www.conocedominga.cl> [검색일: 2018.01.11.].

25 <http://www.conocedominga.cl> [검색일: 2018.01.11.].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환경 분쟁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안데스 철강이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광산 개발 방식과 차별되는 ‘신(新)광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예정된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이 가져올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한 광산 개발 반대 분쟁이 발생하였다.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은 1991년 공식적으로 형성된 어촌 마을로, 특히 도밍가 프로젝트가 계획된 지역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섬들과 해안 지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1990년 칠레 정부는 폰타 데 초로스 마을 근처의 3개의 섬(다마스, 초로스 그리고 차라날 섬)으로 구성된 859.3 헥타의 해양 지역을 국립 홈볼트 펭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Greco 2015, 17). 이 지역은 전 세계 홈볼트 펭귄의 약 80%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그 밖에도 멸종 위기 종인 푸른 고래, 긴 수염고래, 바다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Seo 2017, 2). 이와 함께 2005년에는 이 지역을 폰타 데 초로스 해양 생태 보존 지역으로 또다시 지정하였다. 지역의 이러한 생태적 중요성은 광산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특히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분쟁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싸고 보다 격화되었다.

광산 프로젝트와 같은 민관자본의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법²⁶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주관 기업이 환경평가원 산하의 환경영향평가제도(Sistema de Evaluación Impacto Ambiental, 이하 SEIA)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주관 기관은 SEA이며,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지역 환경평가 위원회(Comisión Regional del Medio Ambiente, 이하 COREMA)를 통해 이뤄진다(Lostarnau et al. 2011, 2472). COREMA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승인할 때 프로젝트 주관 기업에 환경평가결의(Resolución de Calificación Ambiental, 이하 RCA)를 부여한다(ibid.). 칠레의 SEIA의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나 그 환경 영향의 범주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주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조사(Estudio de Impacto Ambiental, 이하 EIA),

26 칠레의 환경일반기초법(법령 19300)은 1994년 승인되었으며 1997년 실질적으로 발효되었다(Lostarnau et al. 2011, 2471). 칠레의 환경 관련 제도는 2007년 3월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11월 합의된 수정안으로 상원을 통과하였다(Sepulveda and Villaruel 2012, 192-194).

소형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영향선언(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이하 DIA)을 제출하게 된다(ibid.).²⁷

표 1.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일지

일 정	내 용
2011년	도밍가 프로젝트 제안
2011년 2월	SEA에 첫 DIA제출
2011년 7월	DIA의 승인. 광산 탐사 허가 및 로스 초로스(Los Choros) 농민 공동체와의 협무 허가
2013년 9월	SEA에 EIA제출
2013년 10월	EIA 관련 첫 번째 주민 공청회
2014년 12월	EIA 관련 두 번째 주민 공청회
2016년 10월	환경 NGO 오세아나의 EIA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2016년 12월	EIA 관련 세 번째 주민 공청회
2017년 3월	코킴보 지역 환경 위원회의 환경평가결의(RCA) 불허 결정
2017년 8월	내각 특별위원회가 코킴보 지역 환경 위원회 결정 재확인
2017년 11월	안데스 철강이 안토파가스타 환경재판소에 제심 청구

출처: 도밍가 프로젝트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분쟁의 핵심 쟁점은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그 과정과 연관되어있다. 특히 프로젝트가 계획된 지역이 생태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정치화된 분쟁은 지역의 생태계 보호주의자들과 광산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론자 간의 대결구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그룹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 그룹들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양하게 위치하여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저항하며 혹은 그에 따른 혜택을 인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7 EIS와 EID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영향평가보고 절차에서 공식적인 주민 참여가 포함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Lostarnau et al. 2011, 2472).

폰타 데 초로스 지역 환경주의의 다양한 동학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사회 운동에 대한 분석에서 베빙턴(Bebbington)과 그의 동료들은 “사회 운동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행위자들은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ebbington et al. 2008, 2891). 이는 매시(Massey)가 ‘시공간압축’(time-space compression)에 따른 경제 세계화에 대한 권력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하는 구조주의적 분석을 경계하며 설명한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매시는 경제 세계화와 연관된 ‘복잡한’ 사회, 권력 관계에 대해 이해할 것을 강조하며,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이한 사회 집단과 상이한 개인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Massey 1994, 149). 상이한 사회 집단이나 개인이 축적해 온 사회 혹은 권력 관계에 따라, 혹은 이들 집단이 어떻게 자본의 흐름과 연관을 맺는가에 따라 어떤 사회 집단은 (경제 세계화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받을 수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ibid.).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얻는 사회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는 보는 집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를 향한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입장은 특정 사회 집단이 현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왔고, 또한 프로젝트로 인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등 사회 집단들이 처한 구조적 여건이나 사회 집단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⁸ 유사한 관점에서 베빙턴이 지적하고 있듯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지역 주민, NGOs, 국가, 기업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 내부, NGOs 내부, 국가 내부, 기업 내부에서도 각기

28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상이한 사회집단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집단 혹은 개인 행위자(actor) 차원의 분석을 넘어 행위자와 국가기관, 혹은 행위자와 기업, 그리고 행위자와 제도 등과의 권력관계의 분석,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전개되는 행위자 간의 정치사회적 동학에 대한 분석도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자료에 의거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로 보고는 이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초석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폰타 데 초로스 지역의 주요 사회 행위자들을 파악하고 지역 차원에서 생태 보호를 위한 지역 ‘환경주의’ 이면에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세력의 동학에 제한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ebbington 2012, 16).

베빙턴(2009)은 특히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급증한 사회-환경 분쟁에 대한 분석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과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여 ‘환경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단순화된 도식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회-환경 분쟁을 다음과 같은 5개의 하위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생태 보호를 위한 환경주의’(conservationist environmentalism), (인간 중심의 자연 이용을 넘은)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 (자원을 둘러싼 권리의 문제와 연관된)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자원에 대한 각기 다른 경제활동 간의 상충, 특히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과 개발 프로젝트 기업 간의 분쟁에서 주로 나타나는) ‘빈곤층의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of the poor), 그리고 (주로 국가의 자원에 대한 주권과 연관된 분쟁인) ‘자원민족주의적 환경주의’(resource-nationalist environmentalism)(Bebbington 2007, 19).²⁹ 아래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의 사회-환경 분쟁 이면에 실질적으로 ‘환경주의’의 다양한 동학이 있음을 인식하고 도밍가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는 폰타 데 초로스 지역 ‘환경주의’ 이면의 복잡한 동학을 지역 내 주요 사회 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폰타 데 초로스 지역 주민의 삶

폰타 데 초로스는 코킴보주, 라 이게라군에 위치한 로스 초로스(Los Choros) 농촌공동체에 속한 어촌 마을로 1991년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Lenninger 2015, 26; Greco 2015, 16). 이 마을에 정착한 주민들은 마을 형성 이전 주로 칠레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영세한 유랑 어민이었으나, 1990년 마을 주변의 섬 지역이 국립 훔볼트 펭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섬에서 일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내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Greco 2015, 17). 이후 로스 초로스 농촌공동체가 내륙으로 이주한 어민연합에게 19.2 헥타르의 토지를 기부하면서 폰타 데 초로스 어촌 마을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ibid.).³⁰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의 인구는 319-349명 정도로 파악되며, 주로 12월-3월 사이는 계절적 인구의 이동으로

29 사회-환경 분쟁 이면의 다양한 성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ebbington(2007)을 참고할 수 있다.

30 이는 ‘지역’, 특히 농촌지역이 전통과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마을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시적으로 거주민의 수가 증가한다(Greco 2015, 2). 칠레에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빈곤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마을 근처 해양지역이 두 차례에 걸쳐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고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관광업 또한 마을 주민들의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어업과 생태관광업 모두 도밍가 프로젝트가 개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민감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다. 아래에서는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환경주의를 구성하는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의 3개의 주요 사회 세력의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경제발전에도 반대하는 환경주의 이면의 복잡한 지역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³¹

첫 번째는 어민 그룹이다. 어업의 경우 특히 1980년대 칠레가 어업 위기를 겪은 후 1991년 칠레 어업법에 따라 ‘어획량 관리 체제’(Áreas de manejo para la explotación de recursos bentónicos, AMERB)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국립어업청이 소규모 어민 조직에게 특정 관리지역을 지정해주고 그 지역의 어획량 관리를 통해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Greco 2015, 17; Gallardo 2008, 92). 폰타 데 초로스 마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대상은 주로 조개와 전복 등의 어패류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획량 관리에 참여하는 어민 조직은 도밍가 프로젝트에 따른 광산 활동과 그에 따른 항구 건설이 어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Lenninger 2015, 33). 폰타 데 초로스의 한 어민 대표는 “프로젝트는 지역의 환경과 사회에 모두 부정적(invasive)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² 폰타 데 초로스 어민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1996년 이후 어패류 어업에 종사해왔으나 2000년 조개류가 지역에서 멸종됨에 따라 2002년 조개류 개체 회복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회복 개체 수 10만 종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가 효과를 보면서 2015년 조개류 생산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도밍가 프로젝트는

31 이러한 3개의 주요 사회 집단을 선정한 것은 지역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지역 환경주의와 관련하여 언론이나 2차 자료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회 행위자들을 선정했음을 밝힌다. 후속적인 현지 조사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사회 그룹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특히 논문이 참조하고 있는 2차 자료들은 주로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의 경제 활동과 연관된 사회 집단 구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내 복잡한 사회, 권력적 관계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사회 집단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Chile Penguins Win Battle in War against Mine”, 2017.10.13. <http://phys.org> [검색일: 2018.01.10.].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³³

하지만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민들이 도밍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즌에 어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중 일부 어민들은 관광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보전한다. 가야르도(Gallardo)와 프리만(Friman)이 밝히고 있듯, 성수기에는 이 지역에 약 2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이때 어민 조합이 약 30여 대의 보트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오프 시즌 동안 관광업에 종사하기도 한다(Gallardo and Friman 2012, 17).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관광업의 경우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관광업 종사자들이 마을에 이주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어민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한 달여의 어업 시즌이 끝나면 계절적 노동이주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광산업 혹은 건축업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한다(Greco 2015, 21).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인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한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어민들은 개별적으로 광산 회사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혜택이나 주택, 교육 등의 분야에서 광산 회사가 보상의 의미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환영하기도 한다(Greco 2015, 24). 위와 같이 푼타 데 초로스 마을의 어민들 중에는 어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도밍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일부 어민들의 경우 광산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적 혜택이나 소득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안데스 철강이 주장하고 있는 신(新)광산 개발의 주민 소통 및 지역 발전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광산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과 맥을 함께 하며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각기 처한 삶의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어민 그룹과 달리 관광에 종사하거나 주변 경관의 가치를 높게 고려하여 푼타 데 초로스 마을 주변으로 이주해 온 사회 그룹(newcomer group)은 도밍가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이들이 어민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신(新)거주민(newcomers)이기 때문이며,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

33 “Fishing Village Fights Iron Mine in Northern Chile”, 2017.04.11. www.ipsnews.net [검색일: 2018.01.10].

된다. 첫 번째는 폰타 데 초로스 마을 주변이 국립 홉볼트 보호지역과 해양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태 관광³⁴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자 관광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해 온 전문적인 관광업자들이다. 또 다른 그룹은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 지역에서 이주해온 소위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주자들이다(Greco 2015, 30). 그레코(Greco)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약 10여 년 전부터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왔으며, 주로 산티아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이주해 온 이들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Greco 2015, 24).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웰빙 라이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Greco 2015, 25). 이들 이주 사회 그룹의 경우 그 목표가 생태 관광업이든 웰빙 라이프이든 이들에게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최우선 순위에 생태적 가치가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주민 집단은 보다 동일한 입장에서 도밍가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환경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사회 집단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밍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는 환경주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도밍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 반대 활동을 주도하는 사회 그룹으로, 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NGO와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과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그룹은 도밍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환경보호 NGO 오세아나(Oceana Chile)는 2007년 라 이게라 지역의 화학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투쟁은 2010년 정부가 발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도록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³⁵ 2010년 이후 오세아나³⁶는 본격적으로 라 이게라 지역의 환경보호를

34 NGO 오세아나의 대표인 반 더 미르(Van der Meer)에 따르면, 1998년 900명에 머물렀던 관광객이 2016년에는 5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Coal Mine threatens Ecological Paradise in Chile’s Patagonia Region”, 2017.11.22. www.ipsnews.net [검색일: 2018.01.11.].

35 “In a Victory for 26,000 Penguins, Locals and Activists Defeat Giant Mining Project”, 2017.11.02. <http://oceana.org> [검색일: 2018.01.10.].

36 오세아나 이외에도 라 이게라 지역의 중요한 NGO 중 하나인 모데마(MODEMA) 역시 2007년 화학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과정에서 설립되었으며, 앞서 설명했던

위한 활동을 지속했으며,³⁷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기술적 측면의 분석을 근거로 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2016년 10월 오세아나는 도밍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술적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은 80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정부 관계자 등에 보냈다.³⁸ 오세아나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코킴보 지역 환경위원회는 도밍가 프로젝트의 승인에 문제가 없음을 추천하였으나, 이후 지역 환경위원회 내부의 표결이 동물에 이르자 코킴보 주지사 클라우디오 이바네스가 2017년 3월 9일 환경평가결의(RCA)를 불허하는 데 마지막 표를 던졌다.³⁹ 오세아나의 대표 반 더 미르(Van der Meer)는 안테스 철강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상당부분 발견되는데 이는 폰타 데 초로스의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밍가 프로젝트는 ‘자연유산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our natural heritage)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⁴⁰

오세아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보고서를 작성함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도밍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생태적 피해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SalvemosLaHiguera(#라이게라를살립니다) 캠페인은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출연하여 도밍가 프로젝트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영상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는데, 오세아나에 따르면 오세아나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SalvemosLaHiguera 영상 공유 건수가 14만 천 건을 상회했다고 한다.⁴¹

위와 같은 NGO의 활동과 함께 일련의 과학자들도 도밍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 부처에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서한에서 과학자들은 도밍가 프로젝트는 라 이게라 지역의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⁴² 또한 이들은

새로운 이주민 그룹들 중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MODEMA의 회원인 경우가 많다(Greco 2015, 24-28).

37 위의 글.

38 위의 글.

39 위의 글.

40 “Coal Mine threatens Ecological Paradise in Chile’s Patagonia Region”, 2017.11.22. www.ipsnews.net [검색일: 2018.01.11.].

41 “Chile: Scientists Call for Protection of La Higuera Coast, Endangered Species in Open Letter”, 2017.08.18. <http://santiagotimes.cl> [검색일: 2018.01.10.].

42 위의 글.

서한에서 안데스 철강이 도밍가 프로젝트의 위치 상(생태 보호구역의 남쪽에 위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미약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흄볼트 해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산 활동과 항구를 통한 선박이동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는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대로 도밍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생태적 재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⁴³

요약하면,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폰타 데 초로스 마을의 지역 환경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회 그룹들⁴⁴의 동학은 각 사회 그룹이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그 환경주의의 성격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어민 그룹의 경우 생계 보전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해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며 그 입장이 반드시 환경주의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어민 그룹의 경우 앞서 베빙턴이 주장했던 사회 환경 분쟁 하위분류에서 ‘빈곤층의 환경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그룹의 경우 어민 그룹에 비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 그룹이 상대적으로 보다 통일된 ‘환경주의’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이주 요인이 환경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환경주의는 ‘심층 생태주의자들’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생태보호를 위한 환경주의’와 유사하며, 이들의 생태 보호적 입장은 생태계 자체보다는 생태계 내 개인적 삶의 질과 보다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주로 환경과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전문적 분석과 정보 전달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적 정의’를 위한 활동가들로 주로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층적 공간에서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인다.⁴⁵ 이처럼 일면 경제 세계화를 대변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지역’의 ‘환경주의’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단순하게 이해되는 지역 환경 분쟁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역 사회 세력들의 동학을 살펴볼 때 ‘지역’을 넘어서는 다층 공간과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주의에도 다양한

43 위의 글.

44 앞서 밝혔듯이 위의 사회 그룹의 구분은 주로 지역의 경제 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정치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 그룹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5 이러한 ‘환경적 정의’를 위한 활동가들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Keck and Sikkik(1998), Haarstad(2007), Urkidi(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 세계화는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과정’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 론

본고의 목적은 자원개발과 지역 환경 분쟁을 「경제발전 vs. 환경보호」와 같은 단순화된 구조주의적 이분법의 틀에서 이해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환경주의에 대한 분석의 차원을 ‘지역’에 두고 지역 내에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주요 사회 그룹의 환경주의 이면의 다양한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칠레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폰타 데 초로스 지역의 사회-환경 분쟁을 분석하였으며, 경제 ‘세계’화가 ‘지역’에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동일하게 강요 혹은 주입되기 보다는 다양하게 ‘경험’되며, ‘저항’받기도 하고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분쟁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안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역 분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뤄진 것에 비해 칠레의 사회 분쟁에 대한 연구는 일부 대표적인 사례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칠레의 사회 분쟁(혹은 사회 운동)과 관련해서는 20세기 대규모 도시 사회 운동이나 제도화된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한 운동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사회 분쟁과 관련해서도 주로 전국적 차원의 영향력을 미친 사회 운동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Delamaza et al. 2017, 24). 특히 칠레는 주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이 높고 신자유주의 경제 발전 모델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 것에 비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분석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제도화 수준으로 인해 칠레에는 마치 정치사회적 분쟁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시키거나 현재의 정치경제적 발전 모델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계는 델라마사(Delamaza)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하듯이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 분쟁을 단순히 넘비적인

지역 이기주의 차원으로 제한하여 이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Delamaza et al. 2017, 25).

도밍가 광산-항구 프로젝트는 안데스 철강이 칠레 중북부의 폰타 데 초로스 마을에서 27년간 개발을 계획한 구리-철광산 프로젝트이다. 개발이 시작되면 연간 철 1,200만 톤과 구리 15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으로 프로젝트가 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밍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폰타 데 초로스 지역 ‘환경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회 그룹들의 동학을 살펴보면, 각 사회 그룹은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그 환경주의의 성격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어민 그룹의 경우 생태 보전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해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며 그 입장이 반드시 환경주의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어민 그룹의 경우 앞서 베빙턴이 주장했던 사회·환경 분쟁 하위분류에서 ‘빈곤층의 환경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그룹의 경우 어민 그룹에 비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주민 그룹이 보다 통일된 ‘환경주의’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이주 요인이 환경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환경주의는 ‘생태보호를 위한 환경주의’와 유사하며, 이들의 생태 보호적 입장은 생태계 자체보다는 생계나 개인적 삶의 질과 보다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주로 환경과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전문적 분석과 정보 전달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적 정의’를 위한 활동가들로 주로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층적 공간에서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 환경주의 이면의 다양한 입장은 경제 세계화에 부합하는 도밍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환경주의라는 분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고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경험되는 ‘과정’으로서의 경제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세계화에 대한 지역의 반대 투쟁이 아닌 각기 다른 사회 세력에 의해 때로는 ‘저항’받고, 때로는 ‘혜택’ 혹은 ‘비판’받는 세계화의 복잡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주로 도밍가 프로젝트와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자료에 의거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로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상이한 행위자와 국가기관, 혹은 행위자와 기업, 그리고 행위자와 제도 등과의 권력관계의 분석,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전개되는 행위자 간의 정치사회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Barton, J. et al.(2012), “Resource Extraction and Local Justice in Chile: Conflicts Over the Commodification of Spac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laces,” in H. Haarstad(ed.), *New Political Spaces in Latin America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ebbington, A.(2007), “The New Extraction: Rewriting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And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2, No. 5, Sep/Oct. pp. 12-20.
- _____(2012), “Extractive Industries,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and Political Economic Transformations in Andean America,” in A. Bebbington(ed.), *Extractive Industries,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South America*, London: Routledge, pp. 3-26.
- Bebbington, A. and Bury, J.(eds.)(2013), *Subterranean Struggles. New Dynamics of Mining, Oil, and Gas in Latin Americ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ebbington, A. et al.(2008), “Mining and Social Movements: Struggles over Livelihood and Rur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e Andes,”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 pp. 2888-2905.
- Delamaza, G. et al.(2017), “Socio-Territorial Conflicts in Chile: Configuration and Politicization (2005-2014),” *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No. 104, pp. 23-46.
-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Chile(2015), *Sectores energético y minero en Chile: 50 preguntas y respuestas*,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Chile.
- Gallardo, G. and E. Friman(2012), “The Politicized Nature of Global Trade – The Continuous Commoditization of Land and Marine Resources, and Struggles for Livelihoods in Chile,” in E. Friman and G. Gallardo(eds.), *Politicized Nature. Global Exchange, Resources and Power*, Cefo Publication Series No. 2.
- Greco, I.(2015), “Social Interaction and Conflicts. Power Inequality Among Actors in a Fishing Community and Natural Reserve Area: The Punta de Choros Case in Chile,” Master Thesis Uppsala Universitet.
- Haarstad, H.(2007), “Globalization and the Power of Rescaled Narratives: A Case of Opposition to Mining in Tambogrande, Peru,” *Political Geography*, Vol. 26, No. 3, pp. 289-308.
- _____(ed.)(2012), *New Political Spaces in Latin America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eck, M. and K. Sikkik(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Lenninger, P.(2015), “Local Livelihoods, Conservation and Mining: An Uneven Struggle over Land Access in Punta de Choros, Chile,” Master Thesis Uppsala Universitet.

- Lostarnau, C. et al.(2011), “Stakeholder Participation within the Public Environmental System in Chile: Major Gap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No. 92, pp. 2470-2478.
- Massey, D.(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yarzún, J. and R. Oyarzún(2011), “Sustainable Development Threats, Inter-Sector Conflicts and Environmental Policy Requirements in the Arid, Mining Rich, Northern Chile Territory,”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 19, pp. 263-274.
- Petras, J. and H. Veltmeyer(2014), *The New Extractivism: A Post-Neoliberal Development Model or Imperialism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and New York: Zedbooks.
- Seo, J-H(2016), “Democratic Reform without Democracy: Roots of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Peru,”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5, No. 2, pp. 79-112.
- (2017), “Chileui La Higuera Jiyeokui Dominga Gwangsan Projectwa Sahoi Hwankyeong Bunjaeng(Dominga Mine Project and Socio-environmental Conflicts in La Higuera, Chile),” EMERiCs, 2017-378.
- Sepúlveda, C. and P. Villaruel(2011), “Swans, Conflicts, and Resonance: Local Movements and the Reform of Chilean Environmental Institution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9, No. 4, pp. 181-200.
- Singh, J.(2010), “Governing the Extractive Sector: The Politics of Globalisation and Copper Policy in Chile,” *Journal of Critical Globalisation Studies*, Issue 3, pp. 60-88.
- Urkidi, L.(2010), “A Glocal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Gold Mining: Pascua-Lama in Chile,” *Ecological Economics*, Issue 70, pp. 219-227.
- Vilalba-Eguiluz, C. and I. Etxano(2017), “Buen Vivir vs Development (II): The Limits of (Neo-)Extractivism,” *Ecological Economics*, Issue 138, pp. 1-11.
- Yi, S-H(2013), “The Chilean Copper Law: Political Economy of Natural Resource and Defens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Vol. 15, No. 2, pp. 89-106.

기사

- “Chile Penguins Win Battle in War against Mine,” 2017.10.13. [access date: 2018.01.10.], <http://phys.org>
- “Chile Rejects Divisive \$2.5 Billion Dominga Copper-iron Ore Project,” 2017.08.21. [access date: 2018.01.10.], www.mining.com
- “Chile Rejects \$2.5 Billion Copper and Iron Project; Company Vows Appeal,” 2017.08.21. [access date: 2018.01.10.], www.reuters.com
- “Chile Rejects \$2.5 Billion Coquimbo Mine Project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2017.08.22. [access date: 2018.01.10.], <http://santiagotimes.cl>
- “Chile: Scientists Call for Protection of La Higuera Coast, Endangered Species

- in Open Letter,” 2017.08.18. [access date: 2018.01.10.], <http://santiagotimes.cl>
- “Coal Mine threatens Ecological Paradise in Chile’s Patagonia Region,” 2017.11.22. [access date: 2018.01.11.], www.ipsnews.net
- “Fishing Village Fights Iron Mine in Northern Chile,” 2017.04.11. [access date: 2018.01.10.], www.ipsnews.net
- “In a Victory for 26,000 Penguins, Locals and Activists Defeat Giant Mining Project,” 2017.11.02. [access date: 2018.01.10.], <http://oceana.org>
- “Presidente ejecutivo de Andes Iron asegura que proyecto Dominga no está muerto,” 2017.10.14. [access date: 2018.01.11.], www.24horas.cl

웹사이트

<http://andesiron.com>

<http://www.conocedominga.cl>

https://map.conflictosmineros.net/ocmal_db-v2/

Article Received: 2018. 01. 24.

Revised: 2018. 02. 19.

Accepted: 2018. 02. 21.